

엇갈린 분수

분수(分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물을 분별하는 자세' 또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한도'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분수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로는 '주제', '분별', '터수', 그리고 우리식대로 '꼴'(꼬락서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수를 모르게 되면 대체로 자기모순(自己矛盾)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기모순(분수)이 또 다시 분수를 모르고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되게 될 요량이면, 급기야 교만에 빠지게 되고, 끝내 이 교만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대적(對敵)에 이르고야 맙니다.

분수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한도)는 남의 자기모순이 자신의 자기모순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謙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분수를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인격'이라고 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의 없이 교만(驕慢)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이미 앞서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인생의 도상에서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낱낱이 감찰(監察)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라”(벧전 05:06-07)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라”(약 04:06)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남이 분수를 모르면 자신 또한 분수를 모를 수 있다는 생각과, 남이
자기모순에 빠지면 자신 또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매한가지
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사람은 모두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아 틀림없
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이 분수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분수를 알고
있다고 ‘정당화’하는 사람은, 또는 남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음을 보면서
자신은 자기분수를 지키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모두 교만한 사람
이라고 보아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교만한 사람의 변(辯)을
‘자기정당화’ 또는 ‘자기합리화’라고 폄하하고 있음은 모두가 이 때문입니
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답전 06:04-05)

기록에 비추어, 교만한 사람은 변론(辯論), 언쟁(言爭)을 좋아하며, 투기(妬忌), 분쟁(紛爭), 비방(誹謗), 부패(腐敗), 악한 생각 등에 사로잡혀 있기 십상일 뿐만 아니라 끝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敬虔, 겸손(謙遜)]을 단지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만 취급하고, 이 때문에 매번 다툼을 끊이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은 대체로 조용하며, 이와는 반대로 분수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시끄럽고 분주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 신분에 맞는 한도’라는 분수의 시각(정의)에서 볼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이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자기모순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 또한 분수를 모르는 남과 같이 때로는 자신 또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내팽개치고, 다만 남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것을 보며 이를 투기, 분쟁, 비방의 대상으로 삼아 지탄하는 것은 자신은 남과 같은 자기모순에 결단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합리화’를 앞세워 둔 ‘더더욱’ 교만한 사람(경건을 단지 이익의 방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자신 또한 분수를 모르는 남과 같이 때로는 남과 같이 자신 또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투기, 분쟁, 비방, 지탄은커녕 오히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자신의 자기모순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더더욱'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경우 '더더욱'이라는 단어는 형편과 처지, 곧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의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에서 붙인 강조부사(強調副詞)로서 사용한 말입니다. 여기서 '더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서로의 신분이 비슷하거나 겹맞지 않으면 분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자기모순에 빠졌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이해를 보다 쉽게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억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인의 분수와, 1000원짜리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은 걸인의 분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곧 동일한 신분을 가진 다른 정치인이 100억과 1000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걸인이 바라보는 100억과 1000원은 다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변입니다.

같은 신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걸인이 자신도 빵을 훔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과, 다른 정치인이 자신도 100억을 뇌물로 수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은 둘 다 겸손한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른 걸인이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빵을 훔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빵을 훔친 걸인을 투기, 분쟁, 비방의

대상으로 삼아 지탄하는 것과, 다른 정치인이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100억을 뇌물로 수수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뇌물을 수수한 그 정치인을 투기, 분쟁, 비방의 대상으로 삼아 지탄하는 것은 둘 다 교만한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신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다른 결인이 정치인의 100억 수수를 지켜보면서 자신도 부정한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다른 정치인이 자신도 1000원짜리 빵을 훔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놓고, 그 사람(다른 결인과 다른 정치인)을 둘 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선 같은 신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수를 '자신의 신분에 맞는 한도'라고 정의하고 있음은 이 때문입니다. 교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필자가 '더더욱'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모두가 이 같은 정의에서 비롯된 그다지 틀리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선생이 선생답다는 의미는 분수를 모르는 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고 있는 선생을 일컬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다운 선생, 곧 분수를 알고 있는 선생이 자신 또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뒷전에 두고, 분수를 모르는 선생을 볼 때마다 그 선생을 지탄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선생을 선생답지 못한 선생이라고 단정하여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을 범한 선생이 경찰에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의 모든 선생이 들고 일어나 성추행을 범한 선생을 지탄하거나 매도하고 있다면 그 모든 선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교만한 사람들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찰에 붙잡혀가는 선생을 지켜보며 학교의 모든 선생이 마치 그들 자신 또한 공범인 것처럼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 모든 선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겸손한 사람들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또한 앞서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가 목사답다는 의미는 분수를 모르는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고 있는 목사를 일컬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다운 목사가 그 또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수를 모르는 목사를 지탄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목사를 목사답지 못한 목사라고 단정하여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목사가 교회 돈으로 세상의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그것도 불법하게 부당이득을 편취하여 쇠고랑을 차고 법정에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다른 모든 목사가 들고 일어나 그 목사를 지탄하거나 매도하고 있다면 모든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교만한 사람들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하여 법정 앞에 서있는 목사를 지켜보며 모든 목사가 마치 그들 자신 또한 공범인 것처럼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면 모든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위기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차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 교회의 위상과 제대로 된 모습을 곧추세워 끊이지 않고 있는 세상의 온갖 지탄과 조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고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세상을 감싸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참 소망을 전하고 증거하여야 할 교회가 이제는 교만과 가식 그리고 위선의 독을 품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저도 모르게 숨죽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주(喪主)가 된 세상의 곡(哭)속에 발인(發引)만을 눈앞에 둔 참담한 형국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 같은 실추된 개신교의 위상에 대하여 기독교계에서는 자체적이나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대외 이미지 실추’(25.41%), ‘사회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21.62%), ‘교단의 교세보고의 거품’(11.35%)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같은 자체분석은 그야말로 실상을 호도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찢는 교회지도자들의 처절한 회개와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간의 지탄과 원성 그대로 ‘개독교’라는 명패가 안성맞춤이 아닐 수 없습니다.

“TMF 당시에도 사례비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교회 앞에서 억지로 졸라대어
억대 연봉을 챙기는 샅꾼 목사들”

“교회를 세습하는 낙타 탄 부자(富者, 父子) 목사들”

“사설경호원을 강단위에 대동하고 설교하는 목사”

“목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조설립을 주창하는 목사들”

“학위논문표절, 재산증식, 교회재산 불법편취, 성폭력, 외화밀반출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또 다시 목회에 임하고
있는 자칭 성직자로서의 목사들”

이 같은 실상은 어쩌다가 생겨났거나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일상 자체라고 보아 무리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숨기고 허상만을 앞세워 이것이 이유이다 싶게 내세우고 있는 기독교계의 자체분석이 그야말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상의 통계와 실제 사례가 시사하고 있는 본질은 기독교나 교단 내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름 아닌 교회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너무 비약되고 왜곡된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의 건방진 이야기라고요? 세상의 곡(哭)은 이렇습니다.

“왜 담임목사의 사례비를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자녀의 학자금으로 매년 3억을 지출한 것이 목사의 사례비에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교회재정으로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서요? 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둘째치고, 그렇다면 애초 세상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까?”

“300억을 들여 교회를 증축할 바에야 차라리 30억을 들여 10개의 교회를 분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총회장이 되려면 선거비용으로 모르긴 해도 30억 이상을 써야 한다던데 그 돈은 어디서 난 돈인가요?”

“교회도 세습하나요? 그렇담 교회가 세상의 재벌회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회장은 목사이고 대표이사는 목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두 밀창에 외화를 숨겨 해외로 밀반출하다가 적발되었다지요? 그런 목사가 또 다시 강단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교회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서요? 도심 한복판에 고급빌라를 사두고 그곳에서 밀회를 즐겼다면서요?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놀랍게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셨다면서요?”

“교회재정을 편법으로 전용하여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한 것도 모자라 이로부터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요?”

필자가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핵심은 분수에 걸맞지 않은 교회지도자의 자기모순에 두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그들 곁에 서있는 교만한 목회자들의 꼴(분수, 꼬락서니)같지 않은 모습에 두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분수를 모르는 목사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지탄하거나 매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수 모르는 과렴치한 목회자들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처럼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모두가 목회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탄하고 매도하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 세속적인 자기과시와 명예 그리고 무사안일의 영달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샅꾼목사들을 비난하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 성추행이나 역대연봉 또는 학위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 결단코

추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채 마치 발람(Balaam, 민 22-24)처럼 거짓선지자로서 세상을 호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과감히 척결해야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 모든 자기모순, 곧 분수를 모르는 목회자 때문에 선량한 목회자가 덤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러한 목회자보다 분수를 아는 목회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모습을 어찌 보아야 할까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자신 신분에 맞는 한도’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분수의 정의에 비추어, 이러한 ‘또 다른 목회자’들의 교만이 앞선 사례의 당사자로서 목회자들 보다 ‘더더욱’ 큰 것이 아닐까요? 그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임을 바로 깨달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러한 목회자들이 ‘더더욱’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의 위기상황과 그간의 분수를 모르고 자행되었던 각양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봄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목회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던져두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도 우리식대로 뭐라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필자 생각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아야 ‘더더욱’ 마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목회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우리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그렇다면 개신교의 위기상황과 그간의 분수를 모르고 자행되었던 각양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봄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회자를 지탄하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의 언변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던져두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도 우리식대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필자 생각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아야 ‘더더욱’ 마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회자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나 분수에 맞게 겸손히
잘하세요”